

인택트 추석 지역민 선택은 ‘간편가정식’

최근 3년간 283% 신장...명절 제수음식 대체
손 많이 가는 모듬전·담양식 떡갈비 등 ‘선호’

간편가정식이 명절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들이 간편식으로 ‘전’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추석 명절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언택트(비대면)가 생활화되면서 차례상과 제수음식 장만을 할 필요성도 줄어든 게 특징이다.

28일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이날 현재까지 간편가정식 제수음식 매출과 판매구성비 비율이 해마다 신장 중이다.

올해 간편가정식 제수음식 신장율은

2018년에 비해 283% 신장했으며, 매출 구성비는 2018년 5%에서 현재는 13%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간편 제수음식의 신장은 달라진 명절 트렌드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소가축화와 1인가구 증가로 최근 명절에 전통적인 차례상 대신 전, 떡갈비, 너비아니 등의 음식만으로 간단, 간소하게 준비하는 추세다.

또한 명절에 대한 인식이 ‘차례’를 지내기보다는 가족들끼리 모여 여가나 휴식을 즐기는 의미가 더욱 커지면서 기호

별로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하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간편 제수음식을 출시하는 제조브랜드의 다양화와 피코크 제수음식 종류가 50여종까지 확대돼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점과 맛과 품질까지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인기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역민들은 명절 제수음식 간편가정식으로 비교적 손이 많이 가는 ‘전’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위 모듬전, 2위 덕인관 떡갈비, 3위 동태전, 4위 오색고지전, 5위 고기 완자전 순이다.

간편가정식 ‘전’은 2018년 설 명절부터 200% 넘게 신장하며 최근까지 고신장을 보이고 있다. 간편가정식 제수음식 전체매출 중 구성비가 87%에 이를 만큼

인기 품목이다.

‘전’은 명절대표음식이나 오랜 준비와 노동으로 주부들의 명절증후군 음식이었다. 그러나 간편가정식 ‘전’이 출시되면서 명절음식 준비의 고민에서 벗어나게 됐다.

특히 ‘피코크 덕인관 떡갈비’의 경우 담양 떡갈비를 옛날 양념방식 그대로 보존했으며 유명 맛집인 덕인관의 50년 양념노하우를 바탕으로 엄선된 소 갈빗살과 정육을 잘게 썰어 만든 우리지역 대표 음식이다.

김양호 이마트 광주점장은 “명절을 간소하게 지내면서 명절 차례음식도 간편식을 선호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맛과 뛰어난 품질의 다양한 간편 가정식 제수음식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후성기자



광주은행, 추석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광주은행은 최근 동구 대인시장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광주은행은 매년 명절을 앞두고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 시장투어 행사를 진행해 왔지만, 올해 추석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수의 어린이들만 참여했다.

참여하지 못한 어린이들을 위해 행사 중 진행상황을 영상에 담아 추후 어린이들이 영상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송죽동 광주은행장은 어린이들과 장을 함께 보고, 경기침체와 고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지역 결손가정과 그룹홈에 온누리상품권 1천만원을 전달했다.

송 은행장은 “광주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과 금융지원을 펼쳐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한전, 전력서비스 개선 제안 공모

한국전력은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전력서비스 개선 국민 제안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주제는 ▲불공정하거나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한(Fair) 제도’ ▲국민 편의 제고 및 환경변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대면(Untact) 서비스’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응원 메시지와 고객의 슬기로운 전기 생활을 공유하기 위한 ‘새로운 환경(New normal)’ 등 3개 부문이다. 이 가운데 새로운 환경 부문은 동영상, 카드뉴스 등의 콘텐츠 공모 형식으로 진행된다. /박은성기자

농협생명 ‘지난해 연도대상’ 전남충국 ‘전국 최다’ 수상

NH농협생명 전남충국은 2019년 농협생명 연도대상에 사무소부문 15개소와 개인부문 38명으로 전국 최다 수상자를 배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코로나19로 시상식을 개최할 수 없어 사무소를 개별 방문해 시상했다.

농협생명 연도대상은 전국 사무소부문 25개 그룹 중 1, 2위와 개인부문 전국 순위 183명에게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상이다.

그중 전남이 사무소 부문 15개소(30%)와 개인부문 38명(20.8%)을 수상, 역대 최다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사무소 부문 그룹 1위(대상)는 완도농협이 4연패를 기록했다.

개인 부문 금상(3명)은 선진농협 고군지점 류경미 과장 외 2명이다. /박은성기자



장예인 근로자 지원 업무협약

광주 북구와 광주장예인근로자지원센터는 28일 오전 북구청에서 문인 청장과 정찬호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창출 및 안정적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 장예인근로자의 고용 해결·지원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광주 북구와 광주장예인근로자지원센터는 28일 오전 북구청에서 문인 청장과 정찬호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창출 및 안정적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 장예인근로자의 고용 해결·지원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中企경기전망 4개월 만에 반등

10월 77.2 전월비 6.2p 상승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10월 경기 전망지수가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최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및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 본부가 최근 광주·전남 중소기업체 189개를 대상으로 10월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77.2(전국 평균 71.2)로 전

월(71.0) 대비 6.2p 상승, 전년 동월(83.2) 대비로는 6.0p 하락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 추세에서 4개월 만에 모처럼 반등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는 71.7로 전월(68.6) 대비 3.1p 상승했으며, 전남은 87.3으로 전월(75.4) 대비 11.9p 상승했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80.7로 전월(72.9) 대비 7.8p 상승했으며, 비제조업은 74.5로 전월(69.5) 대비 5.0p 올랐다.

지역 중소기업 경영애로 결과를 보면 내수부진(79.9%)이 여전히 가장 큰 애

로 나타났다. ‘업체간 과당경쟁(43.4%)’이 두 번째, ‘인건비 상승(39.2%)’이 세 번째, 그 다음으로는 ‘자금조달 곤란(38.1%)’과 ‘판매대금 회수지연(31.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SBHI(Small Business Health Index·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응답내용을 5점 척도로 세분화하고 각 빈도에 가중치를 곱해 산출한 지수다.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음을 나타내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임후성기자



전남인적위 ‘성과 평가’ 우수기관 선정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킹 호평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전남인적위)는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 회의실에서 열린 우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시상식에서 우수기관 표창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

전남인적위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동 주관으로 실시한 2019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성과 평가 결과, 종합 A등급을 획득해 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전남인적위는 모든 지표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지역 내 고용 거버

넌스 관련 위원회(협의체) 운영과 유관기관 협력 및 네트워킹, 조직관리 분야에서 전년 대비 높은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다양한 협의체 운영과 고용 관련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 내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해 현안 과제를 공동 해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한철 공동위원장은 “협의체 운영 활성화와 네트워킹 확대 등을 통해 인적자원위가 전국 대표 고용 거버넌스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용량

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 ①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 ② 북쪽이나 문풍지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 ③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온도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④ 전열기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섬진강이 길러낸 우리 농산물이 가득한 곳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목과시장, 석곡시장

● 장이 서는 날 ●

-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 매월 3일, 8일로 끝나는 날
- 목과시장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 석곡시장 : 매월 5일, 10일로 끝나는 날 (31일이 말일인 경우 31일)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문의 : 062)650-2099